

## ▶ 달러/원 주간 전망

### • 지지선 1300원으로 내릴까..MSCI 리밸런싱 포함 월말수급 주목

서울, 8월2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추가 약세 여부를 살피는 한편 월말 수급에 영향 받으며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00-1345원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23일(현지시간)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 파장은 강력했다. 파월 의장은 "정책조정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다가왔음을 명시적으로 알렸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추가 냉각되는 것을 추구하지도 반기지도 않는다면 강인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을 바탕으로 시장은 9월 금리인하 전망을 굳히는 한편 '빅컷' 가능성도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다. 미국 금리선물시장에서 9월 연준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전 25%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조금 더 올랐다.

달러지수가 13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졌고 뉴욕장 후반 달러/원 NDF 1개월물은 1322원선에 호가돼 직전 서울 현물 종가 대비 약 14원 떨어졌다.

글로벌 달러 약세 추가 진행 여부가 관건으로 만약 달러 따라 달러/원 핵심 지지선인 1320원대 중반이 본격 하향 돌파된다면 환율의 다음 지지선은 1300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주중 엔비디아 실적 결과에 국내외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된다. 연준의 정책 피벗이 확인된 상황에서 AI 산업을 이끄는 대표주자인 엔비디아 기업 실적이 시장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따라 국내 반도체 주가와 함께 원화가 영향받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겠다.

다만, 이번 주는 8월 마지막 주로 수급 변수 영향력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약달러 모멘텀 확산에 따른 달러/원 급락에 역내 수급주체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주까지 딱히 적극적인 추격 매도세가 관측되진 않았지만, 잭슨홀 이벤트를 거치면서 환율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한데 따른 수급 반응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한편, 월말에는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리밸런싱으로 수급 변수가 한층 더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한국 비중 축소로 인한 리밸런싱으로 패시브자금 9천억원 상당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금주 주목되는 해외 경제지표는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다. 또한, 유로존 물가지표와 함께 미국 2분기 GDP 수정치도 나온다. 한편, 국내 지표로는 7월 산업활동동향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 주간 세계 5대 이슈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과 유로존 및 호주 인플레이션 수치로 시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가 하락 압력을 받는 것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사다.

### ⊙ 엔비디아 차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정은 8월28일에 발표되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엔비디아 칩은 AI 분야의 황금 표준으로 여겨진 가운데 올해 주가가 약 150% 상승해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수년간의 놀라운 상승세와 AI에 대한 열광은 20여 년 전 폭발한 닷컴 열풍과 비교되기도 한다.

지난달 알파벳과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들의 실망스러운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특히 해당 섹터의 많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장이 관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30일(현지시간)에는 연준이 주목하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 ⊙ 유로존 물가

금요일에 발표되는 8월 유로존 인플레이션 수치는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결정권자들이 9월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가 하락으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수 있지만, 근원 물가와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견고한 주요 서비스 부문에 대해 관심은 여전히 집중될 것이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레이더들이 ECB 금리 인하 베팅을 늘렸기 때문에 상승 서프라이즈에 주의해야 할 수 있다. 성장 리스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유로존 기업 활동은 8월에 놀라운 강세를 보였다.

트레이더들은 9월12일 ECB의 25bp 금리 인하를 충분히 반영했고 연말까지 두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 호주 물가지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금리를 "장기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호주중앙은행(RBA)에 대한 리스크는 높다.

오는 수요일 나오는 7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RBA의 목표치인 2~3%대로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중앙은행을 압박할 수 있다. 많은 주변국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반면, 호주 중앙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또한 수요일 데이터가 높은 차입 비용으로 타격을 입은 소비자 심리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금요일에 발표되는 일본 도쿄 8월 인플레이션 지표에서는 일본의 금리 전망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 ⊙ 유로 강세 지속 가능성

유로는 최근 글로벌 시장의 혼란으로 달러 대비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과 유로 지역의 금리 전망이 엇갈린 것이 상승의 배경이다. 트레이더들은 연말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약 100bp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ECB는 두번 정도의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무역 가중치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유로화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다.

8월 독일 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어 유럽 경제 엔진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유로존 임금 상승률은 지난 분기 둔화돼 ECB 9월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유로 강세는 소극적인 편으로 유로 반등 확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반짝이는 모든 것

금은 올해 들어 20% 이상 급등해 온스당 3000달러를 앞두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금의 랠리를 촉발시켰고, 그 여파로 치솟은 원자재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화폐 자산의 가치를 약화시켰다.

빠르게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한 중동 긴장과 불확실성은 금 가격 추가 상승에 박차를 가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은 달러를 압박해 금의 매력을 높여 금 매수세를 강화한다. 금은 달러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다만 금 강세론자들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없다"는 옛 격언을 명심해야 하는데 시장은 일반적으로 "루머에 매수하고 사실에 매도"하기 때문이다.

##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 '슈퍼볼' 엔비디아 실적, 뜨거운 시험대에 서다

뉴욕, 8월26일 (로이터) -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올해 시장을 견인한 반도체 제조 대기업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중요한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

S&P500 지수는 이달 초 미국 경제 우려로 인한 매도세로 급락한 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비디아는 최근 저점 이후 30% 이상 급등하며 랠리의 선두에 서 있다. 이 주가는 연초 대비 약 150% 상승해 S&P500 지수 상승률 17%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오는 28일 발표하는 실적은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기로 향하는 시장 심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 회사의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마이크 스미스는 "엔비디아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라면서 "1년에 네 번 열리는 실적을 슈퍼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다. 옵션 분석 회사 ORATS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 날 엔비디아 주가 약 10.3% 변동을 가격에 반영 중이다. 이는 지난 3년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상했던 움직임보다 큰 수치이며, 평균 실적 발표 후 주가 변동률인 8.1%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ORATS 데이터는 밝혔다.

어닝시즌이 끝날 무렵 나오는 이 기업 실적은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기업이 대해 높은 밸류에이션이나 AI에 대한 막대한 지출로 관대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표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MSFT.O, 테슬라 TSLA.O, 알파벳 GOOGL.O 주가는 7월 실적 발표 이후 모두 하락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3년 초 이후 약 750% 급등하여 22일(현지시간)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치가 높은 회사가 되었으며, 20여 년 전 닷컴 버블과의 기업들과도 비교되고 있다.

LSEG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이 회사 주가는 12개월 선행 수익 추정치의 약 37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20년 평균인 29배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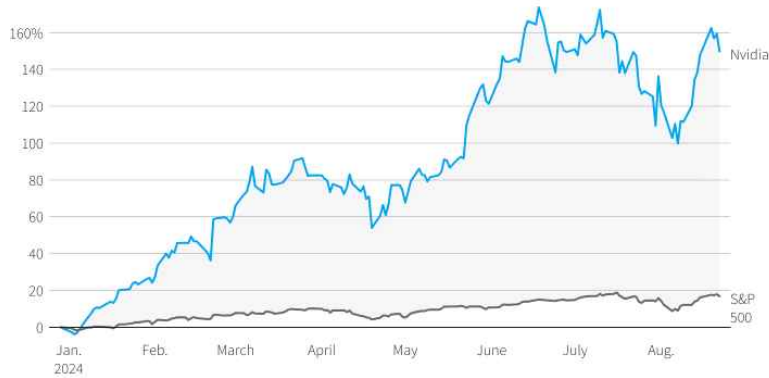
시장 심리는 실적만큼이나 엔비디아의 가이드언스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웰스 매니지먼트의 주식 부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매트 스테키는 경기 둔화 예상에도 투자를 줄이지 않고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은 강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들과 엔비디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벤트"라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속 가능성 여부와 2025년과 2026년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말했다.

## Nvidia shares vs US stock market

2024 performance



Source: LSEG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벨리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존 벨튼은 이 기 실적이 월가에 깊은 인상을 주더라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S&P500 지수는 예상 수익의 21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 평균인 15.7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벨튼은 "주식시장 전체가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높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통화정책과 경제의 경로도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사다.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23일(현지시간) 오전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고용 시장의 추가 냉각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명시적으로 지지했다.

투자자들은 9월6일에 나오는 미국 노동 시장 데이터를 주시하며 지난달 예상치 못한 고용 감소가 8월까지 이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고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이달 초 시장을 뒤흔들었던 경기침체 공포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대선 레이스도 앞으로 몇 주 동안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8월26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8월26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7월	5.0%	-6.7%
8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7월		3.5%
8월27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6월		0.0%
8월27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SA	6월	0.3%	0.3%
8월27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8월	100.6	100.3
8월28일	17:00	유로존	총유동성(M3) 증가율	7월	2.7%	2.2%
8월28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7월		0.3%
8월28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8월23일 주간		225.8
8월29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8월		36.7
8월29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8월		-0.61
8월29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8월	96.0	95.8
8월29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8월	-13.4	-13.4
8월29일	21:30	미국	GDP 수정치	2분기	2.8%	2.8%
8월29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19일 주간	234k	232k
8월29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MM	7월	1.0%	4.8%
8월30일	08:30	일본	도쿄 CPI	8월	2.2%	2.2%
8월30일	08:30	일본	실업률	7월	2.5%	2.5%
8월30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SA	7월	3.3%	-4.2%
8월30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7월	2.9%	3.8%
8월30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8월	2.2%	2.6%
8월30일	18:00	유로존	CPI NSA	8월		126.54
8월30일	18:00	유로존	실업률	7월	6.5%	6.5%
8월30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7월	0.2%	0.2%
8월30일	21:30	미국	소비	7월	0.5%	0.3%
8월30일	21:30	미국	PCE 물가지수 MM	7월	0.2%	0.1%
8월30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8월	45.5	45.3

8월30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 치	8월	68.0	67.8
8월31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8월		49.4
8월31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8월		50.2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8월26일 (월)

- ⊙ 휴장국가: 영국, 필리핀 등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블룸버그TV 인터뷰 (27일 오전 3시)

8월28일 (수)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조지아 스탠포드클럽 및 애틀랜타 스탠포드 흑인 동문회 주최 행사에서 연설 (29일 오전 7시)

8월29일 (목)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조지아공과대학교 경영대서 강연 (30일 오전 4시30분)

8월30일 (금)

- ⊙ 휴장국가: 말레이시아 등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단독)-이스라엘 가자지구 주둔 요구, 휴전협상 방해하고 있어

두바이/베이루트, 8월23일 (로이터) -

이스라엘의 향후 가자지구 군사 주둔과 팔레스타인 포로 석방에 대한 이견이 휴전 및 인질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난주 종료된 미국 중재 회담에 참석한 정통한 소식통 10명이 밝혔다.

하마스 관리 2명과 서방 외교관 3명을 포함한 이 소식통들은 하마스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휴전 제안을 받아들인 이후 이스라엘이 제시한 요구에서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모든 소식통은 하마스가 특히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자지구 남북 간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동서 구간인 넷자림 회랑과 가자와 이집트 사이의 좁은 국경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에 병력을 계속 배치하려는 최근 요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필라델피 회랑을 장악함으로써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지 않는 유일한 가자지구의 국경인 이집트와 가자지구의 국경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 Gaza's Netzarim and Philadelphi Corridors

The approximate locations of two Israeli-controlled corridors traversing the Gaza Strip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순간"에 조건과 변수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양보하면 더 많은 요구가 충족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미디어 사무소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회담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하마스는 언론 성명에서 지난주 회담에서 나온 제안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네타냐후의 최근 입장과 너무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자들에게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보다는 7월 버전의 기본 합의안 이행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지난주 회담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전 제안을 기반으로 한 입장이라며 새로운 요구를 부인했다.

이 성명에서 총리실은 이스라엘의 5월 제안은 비무장 민간인만 넷자림 회랑을 통과해 가자지구 북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7월27일 로마에서 열린 중재자 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안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합의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혀, 하마스 전사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넷자림에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암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회담에 가까운 두 번째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비전투원을 가자지구 북쪽으로 돌려보내는 합의를 "추후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일부 중재자들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넷자림 회랑에서 철수하고 가자 지구 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겠다는 이전 약속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은 20일 돌파구를 모색하면서 이 지역을 순회를 마쳤다. 네타냐후를 만난 후 블링컨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최근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하마스도 그렇게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같은날 기자 회견에서 "일단 그렇게 되면 휴전을 발효하는 데 따른 세부 이행 합의도 완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블링컨이 가교 제안이라고 부르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고 로이터 통신은 사본을 보지 못했다.

한 서방 외교관은 미국 주도의 회담에서 이스라엘의 최근 요구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두 회랑에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네타냐후가 제안한 변경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미국 관리는 "이행"에 관한 협상이 필라델피아와 넷자림 회랑,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 및 석방 대상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 일정과 장소가 합의문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장기 점령에 대해 반박했다.

(문윤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단독)-中 기업들, 아마존 등 클라우드 통해 美 하이엔드 칩에 접근

베이징/싱가포르/뉴욕, 8월23일 (로이터)-

중국 정부와 연계된 중국 기업들이 아마존 또는 그 경쟁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미국의 첨단 칩과 인공지능 기능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공개 입찰 문서에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지난 2년간 중국군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성을 이유로 고급 AI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상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이전만 규제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해 이러한 칩이나 고급 AI 모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로이터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중국 데이터베이스에 지난 1년간 게시된 50개 이상의 입찰 문서를 검토한 결과, 중국 기업 최소 11곳이 제한된 미국 기술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곳은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명시적으로 지목했지만, AWS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중국 중개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로이터가 최초로 보도하는 이런 입찰 문서들은 중국 기업이 고급 컴퓨팅 성능을 확보하고 생성형 AI 모델에 접근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 증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강조하고 있다.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 대변인은 "AWS는 중국 내외에서 AW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역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미국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종합)-해리스, 美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가자지구 전쟁 종식 및 폭정 퇴치 촉구

시카고, 8월23일 (로이터)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현지시간) 2024년 대통령 선거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고, 가자지구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전 세계의 폭정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다.

해리스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원들의 함성 속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진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다"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민주주의와 폭정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에서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미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다"며 트럼프가 독재자들과 유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리스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가자지구에서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며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인질 협상과 휴전 협상이 이뤄져야 할 때"라면서 "항상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옹호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란에 맞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폭군이나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지금까지 나온 외교 정책 관련 발언 중 가장 강경한 스탠스를 취했다.

그는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그런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아울러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들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해리스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중산층을 위해 싸우지 않고, 관세 인상안을 통해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대법관 후보 지명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을 종식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트럼프가 중산층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당선되면 중산층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스는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리스의 연설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던 트럼프는 해리스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무능과 나약함을 상징한다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 "그녀는 세계의 폭군들로부터 결코 존경받지 못할 것이다!" 등의 메시지를 트루스 소셜에 올렸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